

# 부적·영광·패션... 문신 속 아시아의 문화

애틀라문화재단 '아시아의 타투' 29일까지 연장 전시  
BC 3000년 경 미라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소개



미얀마 친(chin)족 전통 문신 © 딜런 골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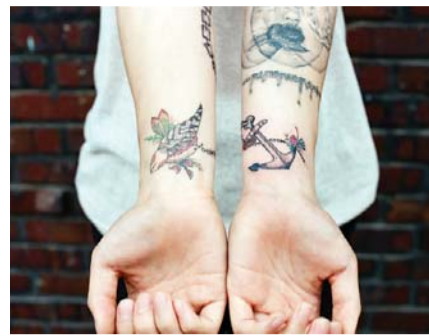
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목 뒤에 타투(문신)를 한 태국 여대생의 모습이다. 건강, 재물, 성공, 행운 등을 비는 의미를 담은 태국의 주술 문신 '싹얀'은 몸에 새긴 터라 '살이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최고의 부적'의 역할을 한다.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면 문신의 역사와 함께 전통과 삶이 담긴 각국의 문신 문화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중인 '아시아의 타투(Tattooed Asia)' 전이 흥미로운 전시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해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 기획관 3에서 시작된 전시는 당초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달까지 한달간 연장했다. 전시 관람을 놓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흔히 타투(Tattoo), 문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것, 범죄와 관련된 위험한 것 등으로 치부돼 억압받고 금지 당하고 사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 표현의 수단과 예술 행위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패션의 일부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면서 부담감도 많이 사라졌다.

이번 전시는 세계 여러 민족 고유의 종교적 세계관, 신화와 민담, 역사적 사실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문화적 상징물로서의 타투를 보여준다. 문신을 표현하는 문양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부터 자연으로부터 파생된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해져왔으며 각국의 삶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안재연·부경환·정지희·김미정씨 등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이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을 방문하고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진, 영상, 도구 등으로 구성돼 생생함과 현장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현대 타투리스트 작품 © 노보(Novo).

이번 전시는 기원전 3천 년경 미라부터 현대 타투리스트 작품까지 문신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문신의 기원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1991년 알프스 지역에서 발견된 외치 미라를 만날 수 있다. 기원전 3300년 경의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알려진 문신 미라 등 가장 오래된 것이다.

'영광이자 신분의 상징'인 대만 피아완족의 손문신, 여성이 남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길 수밖에 없었던 미얀마 친족 여성들의 얼굴 문신,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팔과 다리에 문신을 새겨 기혼 여성처럼 꾸꿨던 인도네시아 숨바족 여성들의 문신 등에서는 희로애락이 담긴 역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밖에 태국 왓방프리의 큰스님, 올해 100세가 된 필리핀 칼링가족의 전통문신 사황웃 오기아할머니가 사용하던 도구 등도 만날 수 있으며 국립대만박물관이 제공한 대만 소수민족의 영상 기록, 현대의 타투, 아시아의 전통 문신을 재해석한 '프로젝션 매핑'도 상영중이다. 또 타투와 관련된 다양한 책자를 읽어볼 수 있다.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하면 훨씬 흥미롭다.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수·토요일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문의 1899-55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주소연 명창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

상금 3천만원·10일 시상식

공작기계 전문 기업 화천그룹의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이 수여하는 제8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로 주소연(51·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 지부장·사진) 명창이 3일 선정됐다.

서암문화재단은 한명희(전 국립국악원장) 씨 등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6월 한달간 심사를 진행한 후 주씨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광주 출신으로 11세에 판소리에 입문한 주씨는 남해성 선생에게 '심청가'를 배운 것을 시작으로 한애순·김영옥·조상현·김수연·전인삼 교수 등 명창들에게 '흥보가' '수궁가' 등을 사사했다.

전남대 국악과와 목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주씨는 광주시립극단 상임차석단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다. 또 제1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씨는 2003년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를 설립, 해마다 정기연주회와 판소리 유파발표회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이바지했으며 고등학교, 대학 등에 출강하며 후진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전수를 하는 등 선행도 실천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광주 힐리데인호텔에서 열리며 수상자인 주소연 명창의 무대도 마련된다.



서암문화재단은 화천그룹이 전통문화 예술을 전승발전시키고 예방에 걸맞는 전통문화예술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다. 특히 화천그룹 창업자인 권승관 명예회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려 설립했다.

재단은 매년 수여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을 비롯해 전통예술 전공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등 전통문화 인재양성,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전통문화 학술 연구도 펼치고 있다. 문의 062-950-152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이강하미술관, 남구 첫 1종 공립미술관 등록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3·1만세운동길 6·사진)이 광주시 미술관 등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구의 최초 1종 공립 미술관으로 등록됐다.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학예사 1명 이상의 전문 인력과 1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해야하며 수장고와 연구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무등산 화가'로 알려진 고(故) 이강하 화백의 작품 400점과 유품 134점을 기증받아 지난 2월 문을 연 이강하미술관은 총 부지 373㎡에 전시실 199.82㎡ 규모로 운영중이다.

현재 개관 기념 전시로 '이강하의 길' 전시 열고 있으며 개관 후 약 5000여명이 다녀갔다. 또 '문화가 있는 날' 진행한

'미드나잇뮤지엄' 등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으며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양림어린이예술학교'를 열 계획이 있다.

특히 9월에는 '2018광주비엔날레-파빌리온 프로젝트' 참가팀인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와 공동 전시를 진행한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 주니어 서포터즈 모집 청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대한민국 연극제 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ACC 주니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ACC는 2016년부터 소년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CC 주니어 서포터즈(舊 ACC 티즈 서포터즈)'를 여름마다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ACC해설사, 고객안내, 전시해설 도슨트, 어린이체험관 교육강사, 창작실습실 문화교육가, ACC기지단 등 총 7종의 직업군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의 062-601-405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한국연극협회광주지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2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극단 청춘이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사진)'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는 제 32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해 제 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는 (김광택 작·오설균 연출)는 '간담 말기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며 굶을 해달라고 했다'는 작가 김광택의 자전적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병든 아버지를 통해 바라본 눈을 겨운 가족애를 그리고 있다. 배우 이기안, 김은미, 노희성, 채희영, 김민성 등이 출연했다.



극단청춘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단이다. 1989년 '청춘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창단했으며 전국연극제 광주 예선에서 연기상과 무대미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